

4)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요

(1) 이면도로에서의 안전한 보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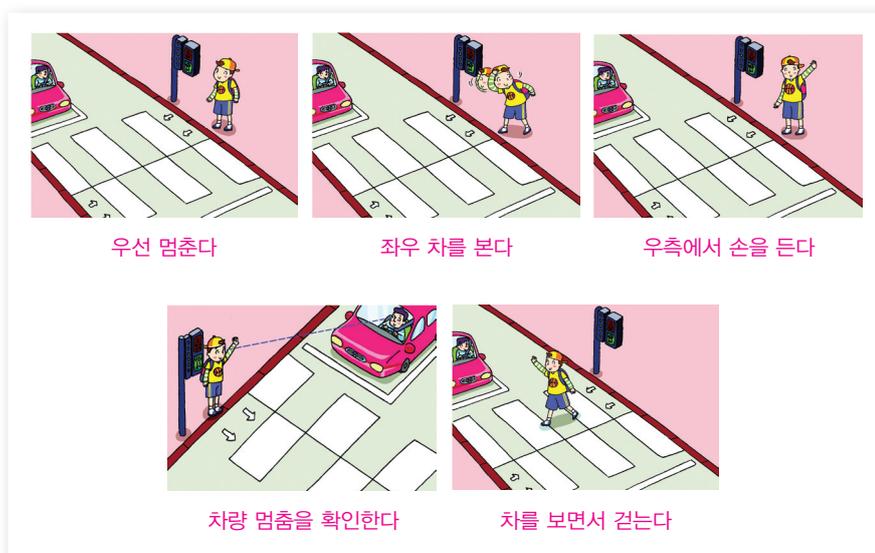
차를 등지고 통행하는 것은 차를 마주 보면서 통행하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아울러 좁은 이면도로에서 차가 오면 우선 멈춘 다음 길 안쪽으로 몸을 붙인 후 차가 지나간 다음 천천히 걷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가 차를 보고 갑자기 뛰어가면 운전자는 깜짝 놀라 그만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우선 멈춘 후 주행하고 있는 차를 보내고 걷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경우 사고 위험이 7배, 자동차 사이 또는 자동차 앞·뒤로 땀 경우 사고 위험이 18배나 높다.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도 안쪽으로 걷기
- 길을 갈 때 길에서 장난하지 않기
- 걸어갈 때 차도 옆으로 다가가지 않기
- 걸어갈 때 뛰어가거나 갑자기 방향 바꾸지 않기
- 걸어갈 때 정지한 차량 사이로 다니지 않기
- 걸어갈 때 손에 물건 들고 다니지 않기

(2)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



출처: 도로교통공단

[그림1]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

첫째.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춘다.

일단 멈추면 주위 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둘째.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펴본다.

반드시 고개를 돌려 좌·우 차를 확인한다.

셋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준다.

횡단보도는 처음에 차가 왼쪽에서 오므로 오른쪽이 보다 안전하며 손을 드는 것은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추어 주세요.”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항상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들어야 한다.

넷째. 차량이 멈추었는지 꼭 확인한다.

초록불이 들어와도 혹은 어린이가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꼭 차량 멈춤을 확인한다.

다섯째. 손을 들고 차를 보면서 건너간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차를 보면서 건너간다.

얼마마 안전하게 걷는지 알아보아요

항목	A등급(20점)	B등급(16점)	D등급(8점)	F등급(4점)
무단횡단	전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편이다.	가끔 하는 편이다.	항상 하는 편이다.
횡단보도 우측통행	항상 우측통행 한다.	우측통행 하는 편이다.	우측통행 하지 않는 편이다.	우측통행 안전성을 전혀 모른다.
보행자 녹색 불에 운전자와 눈 맞추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항상 운전자와 눈 맞춘다.	운전자와 눈 맞추는 편이다.	거의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안 한다.	전혀 눈 맞추기를 안 한다.
운전자에게 손들어 의사표시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항상 손으로 수신호 한 후 건너다.	손으로 수신호 하는 편이다.	거의 수신호 하지 않는다.	전혀 수신호 하지 않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건너기	항상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다.	차를 보면서 천천히 걷는 편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안전점검 결과 평가 : 등급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등급	점수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정도
A등급	85점 이상	교통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보행자